모두가 '모두의 K-GX'를 응원할 수 있도록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튀르키예 안탈리아가 뜨겁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슴 뛰는 언어다.

10월 정부는 K-GX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 약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되는 갈래는 모두의 K-GX다.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약속의 맥락이다.

1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정혜경 의원은 신성장동력 K-GX와 지속가능한 K-GX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는데, 모두의 K-GX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기후보험은 저희가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처를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해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이다. 국회가 증액해준다면 기후보험의 취지를 살려 기후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장관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진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기후보험은 기후재난으로 일을 멈추게 된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국회가 발간한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기후보험에 대해 짚었다. 예산이 연구용역비 3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넘어오는 2026년부터 기후보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공공건설근로자 시범사업을 하라는 요구를 적시했다.

1년이 지났다. 기후부는 2027년 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야외 노동자 약 1만 3300명이 폭염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14일치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적격성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정부안에 담긴 예산은 0원이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1·2차 심사에서 근거 법률이 발의 단계라는 점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지방비 부담 문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등을 지적했다. 지난 8월 국회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을 통과시켜 기후보험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어도 법률이 발의 단계라는 사유는 해소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했을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은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쟁점이며, 관계부처 협업 등의 문제 역시 주관부처가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기후대응기금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K-GX와 직결된 기존 기금 사업은 삭감됐고,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도 5.3% 줄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를 '재정 주머니 옮기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장관은 공을 국회로 넘겼다. 예산심사가 시험대다. 기후 취약계층의 삶을 조금은 살피고, 줄어든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되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야는 이미 합의해 기후적응법을 만들고 기후보험의 근거를 남겼다. 또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사와 요구를 기록한 문서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기후보험에 대한 요구는 명확히 담겨 있다.

K-GX가 진실로 '모두의' 전환이기를 원한다. 네이밍이 가진 그 선명한 매력은 일부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한복판에서 폭염의 빛살과 혹한의 눈보라를 맞고 있는 '모두'에게 향해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뿌리째 흔들린 시험 '공정성'… AI 활용 부정행위 대비해야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씨가 전날(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AI(인공지능) 장비' 사용을 실토하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놨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고 AI가 이를 풀어 답안을 수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객관식인 1차 필기 시험은 그렇다 쳐도, 주관식인 2차 필기 시험도 AI를 활용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됐다.

A씨가 수험장 감독관들에게 비교적 잘 보이는 자리인 2열 중앙(1차 시험), 1열 중앙(2차 시험)에 앉은 것이 드러나면서, '육안'에 의지하는 기존의 시험 관리·감독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실체는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셈이다.

수년씩 공부한 사람도 절절매는 어려운 전문직 시험을 신속 정확하게 풀어내는 AI의 비상함에 감복하다가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I의 힘을 빌려 시험을 통과했을까'란 두려움과 짜증이 밀려들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시점도 절묘하다. A씨가 부정행위를 실토한 시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일 전이다. 착하고 성실하게 머리 속에 학습한 내용을 욱여넣어가며 공부한 학생들은 차라리 이 소식을 듣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다.

정부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능 수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는데, 초소형 카메라가 꼭 안경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결합한 '부정행위 세트'가 버젓이 판매중이다. 16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장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처럼 수험장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도 법령을 정비한 이후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다.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독약이 사회에 퍼지는 건 순간이다. 국가 공인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관련 부처의 선제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수험생들의 몫이다.

교육부는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감독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시대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음 10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60년생** 밀어 부치면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72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고생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소 **49년생** 인내를 가지도록 하세요. **61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73년생**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지레 겁먹고 체념하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62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74년생**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86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63년생** 윗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마세요. **8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 하세요.

용 **52년생**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64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6년생** 적당 주의는 금물입니다. **88년생** 중의 길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 **53년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길합니다. **65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77년생** 바라는 일이 처음엔 뜻처럼 되지 않습니다. **89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합니다.

말 **54년생**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세요. **66년생**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78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90년생**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 **55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67년생**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9년생** 소심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6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닭 **57년생**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69년생** 지금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81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93년생**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길합니다.

개 **58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으세요. **70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82년생**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94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합니다.

돼지 **59년생** 흉한 인간관계는 빠르게 정리하세요. **71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3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95년생** 일처리를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기도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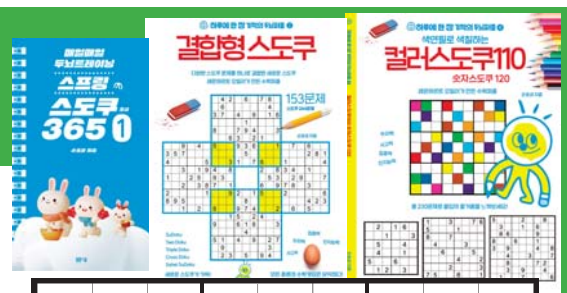
기도에도 법칙이 있을까?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기도 발원이 힘을 발휘하고 기도의 가피를 극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서 나온 말일 듯도 싶다. 종종 듣는 얘기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효험이 없네 하면서 뒷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 까닭이다. 지구상 각각의 종교마다 기원과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 자신의 본성, 존재의 실상 등을 찾기 위한 구도적 목적이나 수행의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복성 기도는 기피하는 경향을 본다. 기독교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느끼는 기독교의 기도는 선주후사(先主後私), 즉 나의 바람이 나 기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 뒤 자기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불가의 기도는 작게는 개인의 발원이 무탈하게 이루어지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기를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이며 크게는 단순한 소원을 넘어 깨달음이나 중생 구제 같은 대승적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의지의 실천이자 발현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떻게 기도해야 말 그대로 기도 성취를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도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어떤 종파는 통성기도나 방언 기도가 특징인 곳도 있고 어떤 교파는 조용히 묵상하며 공동체 신행 생활을 영위하는 곳도 있다. 개신교의 어떤 목사는 기독교적 관점의 기도 법칙으로서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최소 3시간의 온 힘을 기울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임계점이라고 보는 듯했다. 어느 종교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 기도의 공식이자 법칙이며, 도가나 불가에서 정성으로 마음을 모으면 기운이 모여져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응한다는 믿음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2		6	8	3	1
			9	7				
		4		1	3	2		
5	9							
	1						5	
							8	6
		9	8	6		5		
				9	4			
4	6	8	1		5		2	

					7		2	
8		5	2		9			
		2				9	1	
4	5			2			8	
			7		3			
	9			5			4	3
	8	7				1		
			6		8	4		2
	2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